

# 33조 부채탕감·최고금리 인하 등 금융약자에 숨통

## 文정부 1년과 금융혁신

### 〈中〉 생산·포용적 금융 본래도

내주 '동산금융 활성화 전략' 발표  
DTI 등 도입...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GM 등 기업들 구조조정 일단락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금융분야에서 가장 성과를 보인 것은 바로 '포용적 금융'이다. 특히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포용적 금융은 더욱 강조됐다.

이전 정부가 금융회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는 없애고 무한기회를 열어주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이제는 은행이나 카드, 보험 등 업권을 막론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높은 금리나 수수료는 더 이상 설자리를 잃었다.

### ◆ 포용적·생산적 금융 본격 가동

금융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기본 골격은 생산적·포용적 금융이다.

가장 먼저 지난해 7월 말부터 카드수수료는 내렸고, 총 33조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부채탕감)이 완료되는 등 포용적 금융은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금융정책 현황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계획 등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 최고 금리는 24%로 낮아졌고, 금융 약자인 소비자를 위해 연체가산금리와 실손보험료 인하,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등도 줄줄이 시행됐다.

생산적 금융은 올해 들어 본격화됐다. 금융 본연의 역할인 자금증개기능을 살리겠다는 의도다.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모험펀드를 3월 출범시켰고, 4월에는 금융공공기관 연대보증이 폐지됐다.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에 따라 2조1000억원 수준의 코스닥벤처펀드가 조성되는 등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확대됐다.

다음주에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인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

략'이 확정, 발표된다.

생산적인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가계부채를 줄이는 작업도 병행됐다.

정부는 작년 10월, 11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고, 신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자본규제 개편방안으로 금

용회사의 과도한 가계금융 취급유인을 억제했다.

### ◆ 구조조정, '응급조치'는 마무리

KDB산업은행은 지난 11일 GM 측에 법적구속력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했다. 오는 18일에는 GM과 기본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일단락됐다.

금호타이어는 중국더블스타로부터 자본을 유지했다. 중견조선사는 향후 회생가능성을 고려해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의 운명이 갈렸다. STX조선은 경영정상화로,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로 돌입했다. 한국GM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우리 정부와 GM 본사가 총 71억50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견조선사나 금호타이어에 이어 흔들림없이 구조조정 원칙을 세움으로써 시장에 분명하고 일관성있는 메시지를 준 것이 긍정적"이라

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서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으로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이해관계자들의 고통 분담 ▲지속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했고, 아직까지는 원칙을 지켜냈다.

응급조치는 끝났지만 앞으로도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이슈는 지속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중추장대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옥석가리기'를 통해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고 혁신기업의 출현을 유도하는 등 경제시스템의 역동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주요 업종에 대한 산업진단을 통해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정중동 속 글로벌경영 집중

### JY, 경영복귀 100일

"묵묵하게 일 하면 인정받을 것  
어수선해도 할일 꾸준히 할 것"

오는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지 100일이 된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빠른 경영 복귀를 예상했다. 하지만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속되는 검찰 수사와 각종 의혹 제기에도 이 부회장은 정중동 행보를 보이며 글로벌 경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5일 석방된 이후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최근 임원들과 모인 자리에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묵묵하게 일을 해나가면 언젠가는 삼성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 안팎이 어수선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실천하듯 이 부회장은 삼성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3월 말 유럽과 캐나다를 방문한 이후 한 달 만에 중국과 일본을 찾았다. 이 부회장의 다음 행보는 오는 7월 미국에서 열리는 '선벨리컨퍼런스'가 유력시된다. 미국의 대표 휴양지 선벨리에서 열리는 선벨리컨퍼런스로 불리는 이 행사는 미국 투자은행인 앨런앤드컴퍼니가 1983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02년부터 15년간 매년 참가해왔지만 지난해는 구속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순환출자와 금산분리도 이 부회장이 해결해야 할 숙제다. 현재 공정위와 금융위는 순환출자 고리를 이용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상황을 이 부회장이 타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기와 삼성화재 등 계열사의 삼성물산 지분을 매각해 순환출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구조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삼성SDI는 지난달 10일 삼성물산 지분 404만주(2.11%)를 장 마감 이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을 통해 매각했다.

이로써 삼성그룹에 남아있는 순환출자 고리는 7개에서 4개로 줄었다. 삼성전기(2.64%)와 삼성화재(1.38%)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처분하면 순환출자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 그러나 남아있는 출자 고리 해소는 금산분리와 연계된 보험업법 개정 문제가 걸려 있어 삼성도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보험업법 중 일부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보험사의 주식보유 제한 기준을 기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8.19%, 1.43% 보유했다.

이 같은 이유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국내 10대 그룹 전문경영인 회동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해결을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 부회장을 압박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역시 지배구조를 바꿀 의지가 있지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개편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한국인의 true friend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6-05190호 (2016-10-12)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1059호 (2017-10-12~2018-10-11)

[ 헤아리다 ]

고객의 마음이 되어봅니다  
금융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깊은 맛과 향을 우려내려면  
알맞은 온도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금융에 깊이를 더하는 일은  
고객을 이해하려는 마음의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고객을 향한 바른 마음가짐으로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의 바른 길을 이어가겠습니다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